

# 처음 마주하는 영운동

별빛 청주



학교를 끝마치고 영운동 답사를 가는 길. 영운동과 맞붙어 있는 무심천은 어느덧 봄을 맞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4월 초에 만개할 벚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된다. 무심천을 건너 영운동 첫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방범용 CCTV를 마주하게 되었다. 영운동은 범죄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많은 곳에 CCTV가 있었다.



무심천을 건너며 영운동을 바라볼 때, 눈에 띄는 건물들이 몇 가지 있다. 예전에는 한국병원만 보였는데 지금은 영운국민체육센터가 더 먼저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운동 어울림센터가 들어오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영운동 어울림센터는 총면적 9,346㎡ 규모로 복합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과 작은 도서관, 청년 취 창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다.

영운동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이후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노후 주거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을 끝마무리하는 시점에 위치해있다.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니 느껴졌던 것은 중간에 앉아 쉴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덕에 끊임없이 걸어 다닌 나는 잠깐 나무 앞에 앉아 쉴 수 있었다. 이 공간은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주민분들도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다 힘이 들면 잠깐 쉬고 가시곤 하셨다.

그리고, 골목골목 젊은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영운동 국민체육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 나의 친구도 옆 동네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수영 강습을 다녔다고 한다. 외부 거주민들의 일시적인 유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동네, 영운동이다.



영운동의 놀라운 점은 동네 골목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골목길들은 그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널브러진 골목길인데, 영운동은 분리수거장이 동네 곳곳에 있어서 그런지 환경 정돈이 아주 깔끔했다. 우체통도 식상한 디자인이 아니라 깔끔한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균형감을 주었다.



위 사진은 내가 사는 동네인 수곡동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게 한 사진이다. 작은 여유 부지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골목길에 한 줄 주차가 원활히 이뤄져 있다. 영운동 골목길은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보 통행에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 중간중간 위치해 있었다. 이는 어르신들이 댕에 계시다 심심하실 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활동이 이웃 간 소통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나는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골목들은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다. 주택 담장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되어 있었다. 사람 세 명 남짓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까지 신경 써서 사업이 이뤄졌다는 부분이 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웠다. 사진만 찍고 빠르게 집을 가려 했지만, 동네 골목의 매력에 매료되었나보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볼 정도로 영운동은 매력 있는 동네다.



집에 가는 길. 골목 주택가 사이 위치한 '생이 미술관'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예쁜 건물을 못 보고 지나갈 뻔했더니. 이런 예쁜 장소들이 있는 영운동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미술관 안쪽 골목은 밤이 되면 곳곳 불어있는 조명에서 빛이 나온다. 이 골목은 조명들이 마치 반딧불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반딧불이길'이라고 불린다.

영운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시 초록마을사업에 초록 선도 마을로 선정되었다. '초록마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녹색 실천 활동을 펼치며 탄소중립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마을을 말한다. 영운동은 4년 연속 초록 선도 마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우리사랑방을 찾아가게 되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영우리의 사랑방. 하지만 신축 건물에 동네 안내문이 한가득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곳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곳에 붙어있는 명패를 보게 되었다. 아까 마을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푸른도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였는데, 답사 막바지에 뜻을 알게 되었다. '푸른도란'은 맑은 시냇물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영운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내가 아는 영운동은 노후화된 주택가와 한국병원들이 끝이었는데, 이번 현장 답사를 다니며 영운동 내 많은 볼거리와 카페, 음식점들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운동을 마주하고 그 생각의 틀을 깨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멋도 보존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을 깨닫게 되었다.